

대인관계 형용사척도(KIAS-40) 타당화 연구*

정 남 운[†]

가톨릭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대인관계 원형모델에 입각하여 구성된 형용사척도(정남운, 2004)가 이론에서 제시된 대로 원형구조를 가지는지 알아보고, 형용사척도가 원형모델의 두 차원(친애와 통제)을 잘 반영하는지를 다른 척도들과의 상관분석을 통하여 알아봄으로써 척도의 타당도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두 집단의 대학생 피험자들($n=503$)에게 대인관계 형용사척도와 NEO 인성검사의 외향성, 친화성 척도, 그리고 대인관계 문제척도를 실시하였다. 주성분 분석 결과 두 집단 모두에서 대인관계 원형모델의 두 차원에 해당하는 2개의 요인을 확인하였으며, 하위척도들의 요인부하량을 이용하여 평면상에 척도들을 배열한 결과 적절한 원형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형용사 척도의 각 하위척도들과 외향성 척도의 하위척도들 및 친화성 척도의 하위척도들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내용상 유사한 척도들 사이에 상관이 높음을 볼 수 있었으며, 대인관계 문제척도의 문항과 형용사 척도 간의 관계에서도 의미상 일치하는 방향으로 상관이 높게 나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것은 형용사 척도가 친애와 통제의 두 차원이 체계적으로 조합된 대인관계 척도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와 함께 연구의 의의와 한계, 앞으로의 연구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대인관계 형용사척도(KIAS-40), 원형모델, 친애, 통제, 외향성, 친화성

* 이 연구는 2004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교신저자 : 정 남 운,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2동,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E-mail : woon@catholic.ac.kr

대인관계는 개인의 적응과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긍정적인 대인관계는 바람직한 정체성 형성에 도움을 주지만 부정적인 대인관계 경험은 내적 대상관계 형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부정적인 대상관계는 또한 현실의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이는 다시 내면의 자기경험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악순환을 형성한다. 대인관계 문제는 내담자들이 호소하는 문제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외견상 대인관계와 관련이 없는 것 같은 문제들도 자세히 살펴보면 대인관계적인 어려움을 그 배후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흔히 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대인관계 특성이 사회적 장면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그것이 중요한 타인의 반응을 어떻게 이끌어 내는지 민감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상담 과정을 경험적으로 연구하거나 진단 평가를 할 때는 개인의 대인관계적 특성을 잘 측정하는 좋은 평가 도구가 있어야 한다.

대인관계 원형모델(circumplex model)은 성격 특질이나 정서가 개념적, 수학적으로 원형으로 배열된다는 것을 가정한다(Plutchik & Conte, 1997). Leary(1957)가 제안한 이 모델에 따르면 우호-냉담의 ‘친애’ 차원과 지배-순종의 ‘통제’ 차원이라는 두 차원을 가진 평면 위에 대인관계 행동들을 순서 있게 배열할 수 있다.

대인관계 원형모델은 친애 차원(x 축)과 이루는 각도를 기준으로 원을 8등분 또는 16등분한다(Kiesler, 1983, 1996). 90° 위치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8분원(octants)을 배열할 수 있는데, 각 분원에 PA, BC, DE, FG, HI, JK, LM, NO라는 부호를 관습적으로 부여한다. 모든 대인관계 행동은 이 8분원들 중 어느 하나에 위치한다. 대인관계 원에서는 바로 옆에 배열된 행동들끼리는 유사한 특성을 가진다. 그리고

지름의 반대편에는 서로 반대되는 행동이 배열된다. 예컨대 적대적이면서 지배적인 행동은 BC 분원에 위치하게 되고, 우호적이면서 순종적인 행동들은 JK 분원에 위치하게 되는데, 이렇게 두 행동이 대각선의 반대쪽에 위치할 때 두 행동은 가장 강한 부적 상관을 가지게 되며, 서로 직교하는 두 행동은 이론상 영의 상관을 가지고, 이웃한 행동들끼리는 강한 정적 상관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이론적 기준에 적합한 검사 도구는 몇 종류 되지 않는다. Wiggins(1991, 1994)의 대인관계 형용사척도(Interpersonal Adjective Scale-R; IAS-R)와 Horowitz(1979, 1988; Horowitz, Rosenberg, Baer, Ureno, & Villasenor, 1988)의 대인관계 문제척도(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IIP)로부터 구성된 척도(IIP-C; Alden, Wiggins, & Pincus, 1990)가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IIP-C를 번안하고 일부 문항을 보완한 한국형 대인관계 문제검사가 제작된 바 있으며(김영환, 진유경, 조용래, 권정혜, 홍상환, 박은영, 2002; 정남운, 2001a), 대인관계 형용사척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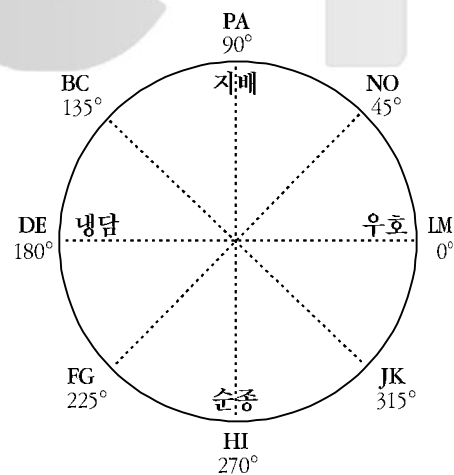


그림 1. 대인관계 원형 모델

제작이 시도된 바 있다(권석만, 김정옥, 2000; 정남운, 2004).

대인관계 형용사척도는 정상인과 내담자의 대인관계 특성을 살펴보는 연구나 상담과정 연구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특히 이 척도는 대인관계 문제척도와 비교해 ‘문제’가 아닌 ‘특성’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피검사자의 저항을 줄일 수 있고, 보다 간편하게 실시하고 채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Wiggins(1979)는 대인관계 원형모델에 근거하여 16개 하위척도를 가진 128문항의 대인관계 형용사척도(IAS)를 만들었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64문항으로 문항수를 대폭 줄이면서도 구조적 특성을 향상시킨 개정판(IAS-R)을 제작한 바 있다(Wiggins, Trapnell, & Phillips, 1988). 그는 이 척도를 사용하여 다양한 연구를 실시하여 척도의 원형성을 확인하고, 벡터길이와 정신병리, 벡터길이와 대인관계 문제 간의 관련성을 밝혔다(Wiggins, Phillips, & Trapnell, 1989).

국내에서는 권석만과 김정옥(2000)이 IAS-R을 번안하여 대학생들에게 사용한 바 있다. 그들은 그것과 대인관계 문제척도 사이에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었으나(김정옥, 권석만, 정남운, 2000), 번안된 이 척도가 대인관계 원형모델에 부합되지 않음이 그 후 경험적으로 입증되었다(정남운, 2001b). 즉, 원척도와는 달리 번안된 척도의 각 하위 척도들은 원형모델의 이론적 각도에서 많이 벗어나 있었다. 외국의 척도를 단순 번안하여 사용하는 것에 일부 문제가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그 후 정남운(2004)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40문항으로 된 대인관계 형용사척도(KIAS-40)를 제작하였다. 그는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하여 두 요인을 추출하고,

두 요인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직교회전을 한 후 각 예비문항의 요인부하량으로부터 각도와 벡터길이를 산출하였다. 이렇게 하여 214개의 예비문항 각각의 수학적 특성을 얻은 후 문항의 의미와 하위척도의 내적합치도를 함께 고려하여 하위척도별로 5문항을 가진 대인관계 형용사 8분원척도를 구성하였다. 이 척도는 원형구조를 가지며, 경험적 위치가 이론적 위치와 잘 부합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이 작업은 다른 표본을 대상으로 한 타당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었다. 따라서 과연 다른 표본에서도 적절한 원형구조를 가지는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며, 이때 관찰되는 원형구조의 두 차원이 친애와 통제라고 하는 대인관계적 측면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 두 차원이 친애와 통제에 해당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형용사 척도 문항의 의미를 살펴보는 직접적인 방법 외에, 그 두 차원과 유사한 특성을 측정하는 척도들과 유의하게 높은 상관을 보이는지 살펴보는 방법이 있다.

성격심리학의 주요 모델 중 하나인 성격의 5요인 모델(Five Factor Model)은 사람들에게 5개의 성격 요인이 공통적으로 존재한다고 본다. 신경증(정서적 안정성), 외향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이 그것으로, 이 중 외향성과 친화성이 대인관계의 특성을 잘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McCrae & Costa, 1989). 대인관계 원형모델과 관련해서는 지배차원과 외향성이, 그리고 친애차원과 친화성이 각각 서로 유사한 것으로 평가된다(Trapnell & Wiggins, 1990; Wiggins, Trapnell, & Phillips, 1988).

한편 대인관계 문제는 대인관계 특성의 문제판(problem version)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대인관계 특성이 어떤 이유로 극단화, 문제

화 된다면 바로 이것이 대인관계 문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대인관계 형용사척도는 대인관계 문제척도와 정적인 상관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형용사 척도의 지배차원의 점수가 높은 피험자는 문제 척도에서도 지나친 지배적 행동과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본 연구는 대인관계 형용사척도(KIAS-40)가 다수 피험자 집단에 걸쳐 원형구조를 가지는지 확인하고, 원형구조의 두 차원이 친애와 통제라는 대인관계 특성을 잘 반영하는지 살펴봄으로써 이 척도의 타당도에 관한 증거를 제시하려고 한다.

방 법

피험자

피험자는 두 집단으로 구성되었다. 집단 1은 서울 및 수도권 3개 대학에 재학중인 229명의 대학생들로, 남자는 81명, 여자는 146명(성별미상 2명)이며 평균 연령은 21.87세(표준편차 3.50)였다. 집단 2는 수도권 소재 대학의 274명의 대학생들로, 남자는 92명, 여자는 179명(미상 3명)이며 평균 연령은 21.11세(표준편차 3.83)였다. 두 집단을 합친 전체 집단은 남자 173명, 여자 325명(미상 5명)으로 총 503명이며, 평균 연령은 21.46세(표준편차 3.70)였다. 이들은 심리학 관련 과목의 수강생들이었다.

도구

대인관계 형용사척도(KIAS-40)

정남운(2004)이 대인관계 원형모델에 따라

구성한 척도로서 친애와 통제의 두 차원을 가지며, 8개의 하위척도 각각에 5개씩의 형용사가 포함되어 있다. 하위척도들의 명칭은 자기확신/주장(PA), 비판/통제(BC), 냉담/배타성(DE), 회피/고립(FG), 비주장/소심(HI), 순응/양보(JK), 온화/친절(LM), 사교성/쾌활(NO)이다. 척도제작시 내적합치도(α)는 .79~.90의 범위를 보였다.

NEO인성검사(NEO-PI-R)

Costa와 McCrae(1992)가 성격의 5요인 모델에 따라 1985년에 제작한 검사의 개정판으로 신경증, 외향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의 5요인을 가진다. 각 요인은 6개의 하위요인(각 8문항)들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개인의 성격을 기술하고 설명하는 데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안창규와 이경임(1997)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척도 중 외향성과 친화성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외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사교적이고 적극적이며 자극과 흥분을 좋아하고 열성적이다. 외향성의 하위척도는 온정(E1), 사교성(E2), 주장(E3), 활동성(E4), 자극추구성(E5), 긍정적 정서(E6)이다. 한편 친화적인 사람들은 타인을 신뢰하고 관심을 가지며 순응적이고 남을 돕고자 한다. 친화성의 하위척도로는 신뢰성(A1), 솔직성(A2), 이타성(A3), 순응성(A4), 겸손(A5), 동정(A6)이 있다. 안창규와 이경임(1997)은 대학생 집단에서 외향성 척도들이 .72~.83(전체 .95), 친화성 척도들이 .68~.77(전체 .91)의 내적합치도(α)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피험자 집단에서는 외향성 척도들이 .79~.86(전체 .94)의 신뢰도를, 그리고 친화성 척도들이 .72~.80(전체 .89)의 신뢰도를 가진 것으로 관찰되었다.

대인관계 문제척도(IIP-C)

정남운(2001a)이 Horowitz 등(1988)의 대인관계 문제척도를 번안하여, 친애와 통제 차원에 높은 요인부하량을 보이는 64개의 문항을 선별하여 구성한 검사이다. 이 문항들은 특정 대인행동을 ‘하기 어려워’ 하거나 ‘너무 많이’ 하여서 문제가 되는 정도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다. 본 연구의 피험자 집단에서는 .95의 신뢰도(α)를 보였다.

연구절차 및 분석방법

집단 1($n=229$)에는 대인관계 형용사척도와 NEO 인성검사를 실시하였고, 집단 2($n=274$)에는 대인관계 형용사척도와 대인관계 문제척도를 실시하였다. 우선 대인관계 형용사척도가 원형구조를 가지는지 요인분석 등을 통하여 알아보았고, 척도들 간의 상관분석을 통해 대인관계 형용사척도가 대인관계의 두 차원을 잘 반영하는지 살펴보았다.

결 과

대인관계 형용사척도의 원형구조

전체 피험자로부터 얻은 대인관계 형용사척도의 각 하위척도(8분원 척도)의 평균점수와 표준편차 및 신뢰도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하위척도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척도구성 당시의 수치와 비슷하였다. ‘바람직한’ 분원(JK, LM, NO, PA)의 평균점수가 ‘바람직하지 못한’ 분원(BC, DE, FG, HI)의 점수보다 더 높게 나온 것은 영문판 대인관계 형용사척도(Wiggins, 1979)의 경우와 유사하였다. 신뢰도는 각 척도

당 문항수가 5개인 것을 감안할 때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으나 BC척도의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다소 낮게 나왔다.

표 2는 하위척도들 간의 상관계수 행렬표이다. 이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 척도들은 인접한 척도들과 강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원형에서 대각선에 위치한 척도와는 강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직교하는 척도와는 0에 가까운, 혹은 비교적 약한 상관만을 보였다. 이러한 상관관계는 대인관계 형용사척도가 이론적인 원형구조에 가깝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2의 상관계수 행렬을 주성분분석에 투입하여 2개의 주성분을 추출하였을 때, 초기고유치가 각각 3.16, 2.42로 전체 변량의 약 69.67%를 설명하였다. 이 두 요인을 varimax 방식으로 직교회전 하여 각 요인에 높은 요인부하량을 보이는 하위척도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두 요인은 각각 친애(우호-냉담)차원과 통제(지배-순종)차원에 해당됨을 알 수 있었다. 각 하위척도가 두 요인에 대해 갖는 요인부하량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이어 같은 방식의 분석을 두 피험자 집단으

표 1. 8분원 척도의 평균점수, 표준편차 및 내적합치도(α)

척도	평균(표준편차)	α
1. PA(자기확신/주장)	5.16(1.17)	.88
2. BC(비판/통제)	4.35(1.02)	.63
3. DE(냉담/의심)	4.08(1.12)	.75
4. FG(회피/고립)	3.56(1.23)	.82
5. HI(비주장/소심)	4.04(1.20)	.80
6. JK(순응/양보)	5.00(1.04)	.75
7. LM(온화/친절)	5.50(.96)	.82
8. NO(사교성/쾌활)	5.34(1.22)	.90

$n=503$

표 2. 8분원 척도간 상관계수

척도	1.	2.	3.	4.	5.	6.	7.	8.
1. PA	1.00							
2. BC	.46	1.00						
3. DE	-.05	.60	1.00					
4. FG	-.44	.22	.60	1.00				
5. HI	-.76	-.20	.27	.62	1.00			
6. JK	-.32	-.40	-.23	.05	.39	1.00		
7. LM	.18	-.24	-.40	-.38	-.08	.54	1.00	
8. NO	.58	.15	-.23	-.65	-.50	-.05	.47	1.00

n=503

표 3. 대인관계 형용사척도의 요인부하량

척도	친애차원	통제차원
1. PA	.00	.81
2. BC	-.69	.44
3. DE	-.82	-.07
4. FG	-.64	-.55
5. HI	-.14	-.79
6. JK	.58	-.47
7. LM	.75	.08
8. NO	.40	.64

n=503. 2개의 주성분을 추출하여 varimax 방식으로 직교회전함.

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두 집단의 분석결과는 서로 매우 유사하였으며, 이는 대인관계 형용사척도의 요인구조가 집단에 걸쳐 비교적 안정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 2는 요인부하량을 대인관계 평면상에 그림으로 제시한 것으로, 두 피험자 집단에서의 원형구조가 매우 흡사함으로 보여주고 있다.

표 2와 그림 2는 대인관계 형용사척도가 원형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직관적으로 보여주었

다. 그러나 이런 판단에는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으므로, Fisher(1983)가 제안한 절차에 따라 통계적 검증을 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각 하위척도가 친애차원과 이루는 각도를 구하고 이 경험적 각도와 이론적 각도의 차이를 구하였다. 이 차이의 절대값에 코사인(cosine)을 취한, 코사인 상관계수는 이론적 각도와 경험적 각도 간의 부합도를 나타낸다. 그러나 Fisher(1983)는 이 계수가 실제 부합도보다 더 부풀려지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그 대신 공식 $A^0 = 1 - \theta/180$ (θ 는 비교되는 두 각도의 차이)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Fisher의 A^0 는 일종의 비율로서 0~1의 수치를 가지며, 0은 두 각도 간의 완전한 불일치를, 1은 완전한 일치율을 의미한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 피험자 집단에서 대인관계 형용사척도의 실제 각도는 이론적 각도에 대하여 약 96.1%의 높은 일치율을 나타내 보였다. 표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집단 1에서는 97.0%, 집단 2에서는 95.2%의 일치율을 관찰할 수 있었다.

Fisher의 공식, $x^2_{(1)} = \sqrt{2n} \times \cos^2$ (n 은 범주의 수. 여기서는 8)은 실제 척도가 이론적 척



그림 2. 대인관계형용사 척도의 원형구조

도와 독립적이라는 영가설을 검증할 수 있게 해 준다. 전체 집단에서 얻은 형용사척도의 각도와 이론적 각도 사이의 평균 차이는 7.04° 였으며, 평균 코사인 상관은 .990이었다. 이 자료로부터 얻은 χ^2 값은 영가설이 기각됨을 보여 주었다, $\chi^2_{(1)}=3.92, p<.05$. 집단 1과 집단 2에

서 얻은 자료에서도 모두 영가설이 기각되었다 (집단 1 $\chi^2_{(1)}=3.95, p<.05$; 집단 2 $\chi^2_{(1)}=3.88, p<.05$). 즉, 대인관계 형용사척도의 경험적 위치는 원형모델에 따른 이론적 위치와 잘 부합됨을 볼 수 있었다.

표 4. 8분원 척도의 이론적 각도와 경험적 각도의 차이에 대한 코사인 상관과 A^0 값

척도	이론적 각도(1)	경험적 각도(2)	(1) - (2)	cosine상관	A^0
1. PA	90.00	90.00	0.00	1.000	1.00
2. BC	135.00	147.49	12.49	.976	.93
3. DE	180.00	184.89	4.89	.996	.97
4. FG	225.00	220.44	4.56	.997	.97
5. HI	270.00	259.99	10.01	.985	.94
6. JK	315.00	320.68	5.68	.995	.97
7. LM	.00	6.00	6.00	.995	.97
8. NO	45.00	57.72	12.72	.976	.93
평균			7.04	.990	.96

n=503

NEO 인성검사(외향성 및 친화성)와의 관계

대인관계 원형모델의 두 차원, 즉 친애차원과 통제차원은 각각 5요인 모델의 친화성 및 외향성에 상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집단 1에는 NEO 인성검사의 외향성 및 친화성 척도를 대인관계 형용사척도와 함께

실시하였다. 표 5는 형용사 척도와 외향성 척도의 상관행렬이며, 그림 3은 이를 요인분석하여 대인관계 평면상에 표시한 것이다.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외향성 척도의 점수는 NO척도와 가장 강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PA, LM척도 순으로 강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외향성은 FG척도와 가장

표 5. 대인관계형용사 척도와 외향성 척도의 상관계수

	PA 자기확신 /주장	BC 비판 /통제	DE 냉담 /배타성	FG 회피 /고립	HI 비주장 /소심	JK 순응 /양보	LM 온화 /친절	NO 사교성 /쾌활
외향성	.63 **	.14 *	-.30 **	-.73 **	-.59 **	-.07	.42 **	.81 **
온정	.24 **	-.23 **	-.50 **	-.68 **	-.27 **	.29 **	.64 **	.60 **
사교성	.33 **	-.02	-.26 **	-.57 **	-.37 **	.08	.35 **	.58 **
주장	.74 **	.37 **	-.06	-.52 **	-.66 **	-.28 **	.22 **	.66 **
활동성	.60 **	.19 **	-.19 **	-.58 **	-.60 **	-.21 **	.21 **	.66 **
자극추구성	.44 **	.27 **	-.00	-.29 **	-.33 **	-.21 **	.08	.45 **
긍정적정서	.46 **	-.01	-.38 **	-.68 **	-.43 **	.04	.43 **	.70 **

n=225. * <.05, ** <.01

강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 HI, DE척도 순으로 큰 부적 상관을 보였다. 만약 원형모델의 통제 차원이 5요인 모델의 외향성과 정확하게 일치

한다면 외향성은 PA척도와 가장 강한 정적 상관을, HI척도와 가장 강한 음의 상관을 보여야 할 것이다. 결과는 그와는 조금 다르게, 외향

그림 3. 대인관계형용사 척도와 외향성 척도들의 위치

표 6. 대인관계형용사 척도와 친화성 척도의 상관계수

	PA 자기확신 /주장	BC 비관 /통제	DE 냉담 /메타성	FG 회피 /고립	HI 비주장 /소심	JK 순응 /양보	LM 온화 /진절	NO 사교성 /쾌활
친화성	-.26**	-.56**	-.51**	-.21**	.14*	.52**	.51**	.07
신뢰성	.11	-.28**	-.50**	-.42**	-.15*	.30**	.45**	.39**
솔직성	-.12	-.34**	-.34**	-.10	-.01	.21**	.24**	.01
이타성	-.07	-.48**	-.57**	-.41**	-.03	.45**	.59**	.20**
순응성	-.40**	-.57**	-.39**	-.02	.32**	.50**	.29**	-.17**
겸손	-.50**	-.28**	.03	.28**	.41**	.34**	.09	-.32**
동정	.00	-.21**	-.24**	-.20**	-.04	.21**	.35**	.21**

n=225. * <.05, ** <.01

성 전체점수가 NO척도와 더 강한 상관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NEO 인성검사의 외향성의 하위척도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온정’ ‘사교성’ ‘긍정적 정서’ 등은 외향성에 더하여 우호적 정서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온정’은 친애차원을 강하게 반영하는 LM(온화/친절) 척도와 가장 강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사교성’과 ‘긍정적 정서’는 NO(사교성/쾌활) 척도와 가장 강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한편 ‘주장’은 지배차원을 가장 강하게 반영하는 PA(자기확신/주장) 척도와 강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활동성’과 ‘자극추구성’은 PA와 NO척도에 비슷한 정도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 그림 3을 보면 ‘주장’은 PA척도에 가깝고, ‘긍정적 정서’와 ‘사교성’은 NO척도에 가까우며, ‘온정’은 LM척도에 가까움을 알 수 있다. 이는 NEO 인성검사의 외향성 척도들이 우호-지배 사분면에 고루 분포되어 있

음을 보여준다.

표 6과 그림 4는 형용사 척도와 친화성 척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NEO 친화성척도의 하위척도들을 살펴본 결과, 대인관계에서의 우호성을 반영하는 ‘신뢰성’, ‘솔직성’, ‘이타성’, ‘동정’은 LM(온화/친절) 척도와 가장 강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우호적이며 순종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순응성’은 JK(순응/양보) 척도와, 순종적이며 비주장적인 ‘겸손’은 HI(비주장/소심) 척도와 강한 정적 상관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림 4에서는 대인관계 평면상에서 각 척도들의 상대적 위치를 볼 수 있었다.

대인관계 문제와의 관련성

그 자체로는 중립적인 대인관계 성향도 어떤 내적, 외적 어려움을 만날 때 대인관계 문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관련성을 살

그림 4. 대인관계형용사 척도와 친화성 척도들의 위치

표 7. 대인관계 형용사척도의 두 요인점수와 상관이 높은 대인관계 문제척도 문항

형용사척도의 차원	대인관계 문제척도(IIP) 문항
요인점수1 (친애차원)	다른 사람에게 너무 관대하다 (.42)
	다른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을 너무 많이 한다 (.24)
	싸울만한 상황임에도 다른 사람과 싸우기가 어렵다 (.23)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이 어렵다 (-.48)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기가 어렵다 (-.44)
요인점수2 (지배차원)	다른 사람들과 지나치게 논쟁을 벌인다 (.26)
	다른 사람의 일을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두기가 어렵다 (.24)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지나치게 통제하려고 한다 (.21)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주장을 하기가 어렵다 (-.56)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을 사람들에게 따지기가 어렵다 (-.56)
	다른 사람과 논쟁하는 것이 어렵다 (-.49)

$n=262$. 괄호 안은 상관계수임. 모든 상관계수가 유의함, $p<.001$.

펴보기 위하여 집단 2를 대상으로 대인관계 문제척도와 대인관계 형용사척도를 함께 실시하였다. 먼저 대인관계 형용사척도의 점수를 주성분분석에 투입하여 두 요인을 직교회전한 뒤 각 피험자의 요인점수를 구하였다. 그리고 이 요인점수와 대인관계 문제척도의 각 문항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여, 요인점수와 높은 상관을 보이는 문항들을 순서대로 선별하였다.

표 7에는 친애차원과 높은 정적 및 부적 상관을 보이는 대인문제 문항들과, 통제차원과 정적 및 부적 상관이 높은 대인문제 문항들을 제시하였다. 먼저 친애차원과 정적 상관을 보이는 문항들은 타인에게 지나치게 허용적이고 우호적이어서 문제가 있다는 진술을 담고 있었다. 반면 이 차원과 부적 상관을 보이는 문항들은 타인과 가까워지는 것이 어렵고 너무 공격적이어서 문제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따라서 형용사 척도의 친애차원은 대인관계 문제의 측면에서 볼 때 너무 우호적

이거나 너무 적대적인 친애차원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형용사 척도의 통제차원과 정적 상관이 높은 대인문제 문항들은 지배, 통제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고, 부적 상관이 높은 문항들은 자기주장의 어려움과 관련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형용사 척도와 대인관계 문제척도는 그 대인관계 성향의 방향성에서 전반적으로 일치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형용사 척도의 8개 하위척도들과 상관이 높은 대인문제들을 선별하였을 때도 드러났다(표 8). 이들 대인문제 문항들은 대체로 각 형용사 척도의 대인관계 특성이 극단화, 문제화된 것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논 의

본 연구는 대인관계 원형모델에 따라 구성

표 8. 대인관계형용사 하위척도와 상관성이 높은 대인관계 문제

형용사척도	대인관계 문제척도(IIP) 문항
PA (자기확신/주장)	다른 사람의 일을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두기가 어렵다 (.29)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지나치게 통제하려고 한다 (.24) 다른 사람들과 지나치게 논쟁을 벌인다 (.24)
BC (비판/통제)	다른 사람에게 너무 공격적이다 (.43) 사람들에게 앙갚음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다 (.38)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지나치게 조종한다 (.37)
DE (냉담/의심)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이 어렵다 (.47)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공격적이다 (.46)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비판한다 (.39)
FG (회피/고립)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기가 어렵다 (.66) 여러 사람이 모인 집단에 같이 어울리기가 어렵다 (.61) 친구를 사귀기가 어렵다 (.56)
HI (비주장/소심)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주장을 하기가 어렵다 (.48) 확고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필요한 때에도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 (.47)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을 사람들에게 따지기가 어렵다 (.46)
JK (순응/양보)	다른 사람에게 너무 관대하다 (.46) 싸울만한 상황임에도 다른 사람과 싸우기가 어렵다 (.37) 다른 사람에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어렵다 (.33)
LM (온화/친절)	다른 사람에게 너무 관대하다 (.43) 다른 사람의 일을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두기가 어렵다 (.26)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믿는다 (.25)
NO (사교성/쾌활)	다른 사람을 웃기기 위한 행동을 너무 많이 한다 (.34)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너무 많이 공개한다 (.32) 다른 사람의 일을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두기가 어렵다 (.30)

$n=262$. 괄호 안은 상관계수임. 모든 상관계수가 유의함, $p<.001$.

된 형용사 척도가 과연 다른 표본에서도 원형 구조를 가지는지 경험적으로 확인하고, 원형모델의 두 차원인 통제 및 친애 차원이 성격의 5 요인 모델의 주요 요인인 외향성 및 친애성과 대체로 일치하는 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대인관계 문제척도와의 상관분석을 통하여 두 척도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도 알아보았다.

형용사 척도의 상호 상관계수를 주성분분석을 하여 직교회전을 한 결과 친애와 통제 차원에 해당되는 두 요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각 하위척도의 요인부하량을 검토하였을 때 대인관계 형용사척도가 원형을 이루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Fisher(1983)의 방법을 사용한 통계적 분석에서도 확인되었다.

이렇게 두 집단 모두에서, 그리고 전체 집단에서 유사한 결과를 보인 것은 이 척도의 요인 구조가 표본에 걸쳐서 안정적임을 보여준다.

NEO 인성검사의 외향성 척도와 형용사 척도의 상관을 검토하고 요인분석을 한 결과, 외향성의 하위척도들은 대체로 대인관계 평면의 1사분면(우호-지배)에 해당함을 볼 수 있었다. 내용상 우호-지배적인 외향성 하위척도들은 NO(사교성/쾌활)척도와 상관이 높았고, 내용상 지배적인 외향성 하위척도들은 PA(자기확신/주장)척도와 상관이 높았다. 한편 친화성 검사와의 상관 및 요인분석은 친화성의 하위척도들이 우호 차원과 대체로 일치하거나 4사분면(우호-순종)에 위치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내용상 우호적인 친화성 하위척도들은 LM(온화/친절)척도와 상관이 높았고, 내용상 우호-순종적인 친화성 하위척도들은 JK(순응/양보)척도와 상관이 높았다. 이런 분석은 형용사 척도의 두 차원이 5요인 모델에서 말하는 친화성 및 외향성과 전반적으로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만 NEO 검사를 사용할 때에는 하위척도들의 내용을 참고하여 해석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McCrae와 Costa(1989)가 IAS-R과 NEO-PI 검사를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한 결과와 매우 흡사하였다.

대인관계 원형모델의 문제판이라고 할 수 있는, 대인관계 문제척도와의 상관분석은 형용사 척도와 대인문제 척도가 대인관계 성향의 방향성에서 대체로 일치함을 보여주었다. 예컨대 형용사 척도에서 냉담차원의 점수가 높은 피험자는 대인관계 문제척도에서도 냉담-적대적 문제를 더 많이 보고하는 경향이 있었고, 순종 차원의 점수가 높은 피험자는 지나치게 비주장적이고 순종적인 대인문제를 경험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와 같은 여러 분석은 대인관계 형용사 척도의 타당도를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인관계 형용사 척도는 적절한 원형구조를 가지며, 내용상으로도 대인관계의 친애 및 통제에 두 차원을 잘 반영하고 있었다.

이 형용사 척도는 피험자의 대인관계 특성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다. 이 척도는 자기보고형 검사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정자들이 특정한 개인의 대인행동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각 하위척도들은 대인행동의 두 차원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대인관계 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다양한 이차관계 및 다차관계에서 대인관계 특성이 타인의 어떤 대인반응을 유발하는지 알아보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상담 장면에서 이 척도는 내담자의 대인관계 성향과 그에 따른 문제를 알아보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내담자의 주된 대인관계 특성을 파악할 수 있으면 상담에서의 대인관계 양상이 어떻게 펼쳐질 지도 좀 더 쉽게 짐작할 수 있으며, 적절한 상담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특정한 대인관계 성향의 내담자가 상담자와 치료적 동맹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상담자와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가는지, 상담자에게서 어떤 감정과 행동을 촉발하는지, 상담에서 어떤 성과를 얻는지 등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내담자의 '끄는 힘'이 상담자의 무엇을 이끌어내는 지를 이해하는 것은 상담 과정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상담과정 연구에서 대인관계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예컨대 내현적 대인반응척도(김지은, 조성호, 2004)나 대인관계 패턴 질문지(윤지희, 정남운, 2004)를 대인관계 형용

사척도와 함께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형용사 척도는 전체적으로는 비교적 만족스러운 심리측정적 특성을 보이지만 각 하위척도별로 살펴보면 앞으로 더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 특히 BC, HI, NO 척도는 이론적 위치와의 일치도가 93~94%여서 일치도가 97%인 다른 척도들에 비해 정확한 위치에서 약간 어긋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NO와 PA 척도 간의 거리가 다소 가깝고, HI와 JK 척도 간의 거리가 다소 멀어졌으며, 이는 이들 인접한 척도들 간의 변별성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BC척도의 신뢰도가 .63으로 다른 척도들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척도의 문항 중 '통제적'이라는 문항이 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문항은 교정된 문항-총점 상관이 .19에 불과하여 전체 신뢰도를 낮추었다. 이후 연구에서는 다른 표본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관찰되는지 확인한 후 문항을 교체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각 문항의 난이도와 변별도도 확인하여 문제가 있는 문항이 있다면 보다 적절한 문항으로 교체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가 대인관계 형용사 척도의 타당도에 관한 일차적 증거를 제시하고는 있지만 아직 충분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문항을 개선하는 작업과 더불어, 앞으로 심리적 증상을 비롯한 다양한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아야 하고, 또한 일반인 등으로 연구대상을 확대하여 그 결과들을 비교해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권석만, 김정옥 (2000). 한국판 대인관계 형용사

척도의 개발. 미발표논문.

김영환, 진유경, 조용래, 권정혜, 홍상황, 박은영 (2002).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의 타당화: KIIP-C와 KIIP-PD의 신뢰도와 타당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 391-411.

김정옥, 권석만, 정남운 (2000). 한국판 대인관계 문제 척도(K-IIP)의 개발: 요인구조 및 심리측정적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 153-175.

김지은, 조성호 (2004). 내현적 대인반응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 407-434.

안창규, 이경임 (1997). NEO 인성검사의 해석과 활용. 부산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윤지희, 정남운 (2004). 대인관계 패턴 질문지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 613-635.

정남운 (2001a). 대인관계 원형모델에 따른 한국판 대인관계 문제척도의 구성. 심리과학, 10, 117-132.

정남운 (2001b). 과민성 자기에 척도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 193-216.

정남운 (2004). 대인관계 원형모델에 따른 한국판 대인관계 형용사척도의 구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 37-51.

Alden, L. E., Wiggins, J. S., & Pincus, A. L. (1990). Construction of circumplex scales for the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5(3&4), 521-536.

Costa, P. T. Jr., & McCrae, R. R. (1985). *The NEO Personality Inventory Manua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Costa, P. T. Jr., & McCrae, R. R. (1992). The

- Revised NEO Personality Inventory. In S. R. Briggs & J. Cheek(Eds.), *Personality Measures*. JAI Press.
- Fisher, G. A. (1983, September). *Coefficients of agreement for circular data*.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Detroit, MI.
- Horowitz, L. M. (1979). On the cognitive structure of interpersonal problems treated in psychotherap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 5-15.
- Horowitz, L. M. (1988).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Scoring procedures*. Unpublished manuscript, Stanford University, Stanford, CA.
- Horowitz, L. M., Rosenberg, S. E., Baer, B. A., Ureno, G., & Villasenor, V. S. (1988).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Psychometric properties and clinical applicat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885-892.
- Kiesler, D. J. (1983). The 1982 interpersonal circle: A taxonomy for complementarity in human transactions. *Psychological Review, 90*, 185-214.
- Kiesler, D. J. (1996). *Contemporary interpersonal theory and research: Personality, psychopathology, and psychotherapy*.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 Leary, T. (1957). *Interpersonal diagnosis of personality*. New York: Ronald Press.
- McCrae, R. R., & Costa, P. T., Jr. (1989). The structure of interpersonal traits: Wiggins's circumplex and the five-factor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586-595.
- Plutchik, R., & Conte, H. R. (1997). Introduction. In R. Plutchik & H. R. Conte (eds.), *Circumplex models of personality and emotion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Trapnell, P. D., & Wiggins, J. S. (1990). Extension of the interpersonal adjective scales to include the big five dimensions of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781-790.
- Wiggins, J. S. (1979). A psychological taxonomy of trait-descriptive terms: The interpersonal domai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395-412.
- Wiggins, J. S. (1991). *The Interpersonal Adjective Scale(IAS)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Wiggins, J. S. (1994). *Interpersonal Adjective Scales : Professional manua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Inc.
- Wiggins, J. S., Phillips, N., & Trapnell, P. (1989). Circular reasoning about interpersonal behavior: Evidence concerning some untested assumptions underlying class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296-305.
- Wiggins, J. S., Trapnell, P., & Phillips, N. (1988). Psychometric and geometric characteristics of the revised Interpersonal Adjective Scales (IAS-R).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23*, 517-530.

원 고 접 수 일 : 2005. 5. 31
수정원고접수일 : 2005. 5. 31
게 재 결 정 일 : 2005. 8. 5

A Validation Stud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Interpersonal Adjective Scales(KIAS-40)

Nam-Woon Chung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was to validate a Korean version of the Interpersonal Adjective Scales (KIAS-40). Two samples of university undergraduates ($n_1=229$, $n_2=274$, total= 503) were used for this purpose of the study. The eight 5-item scale scores were intercorrelated and subjected to a series of principal component analyses in which two interpersonal factors (Affiliation and Control) were extracted. Post hoc chi-square tests developed by Fisher(1983) were used to evaluate the circumplex structure of the KIAS-40 in two different samples. These tests suggested a high degree of convergence between the empirical locations of the KIAS-40 scales and the locations predicted by circumplex theory. Correlational and factor analyses of Extraversion and Agreeableness Domains of NEO-PI-R and KIAS-40 showed that the interpersonal circumplex occupied the two-dimensional plane defined by Extraversion and Agreeableness. The IIP-C items also confirmed the KIAS-40 had good concurrent validit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along with some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es.

Key Words : KIAS-40, circumplex model, affiliation, control, extraversion, agreeableness.